

폭염·가뭄·태풍에 가격 더 쫓라

추석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급증

추석을 앞두고 폭염과 가뭄으로 과일 등 신선식품 가격이 오를 것이라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추석선물세트를 사전예약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 사전예약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20.3% 매출이 신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상품군별로는 가공생필품이 32.6%가 증가했고 수산은 26.4%가 올랐다. 또 건강식품 19.2%, 청과 18.6%, 축산 11.2% 증가 등 사전예약을 통해 추석 선물을 미리 준비하려는 고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지역 롯데마트 4개점(상무·첨단·수완·월드컵) 역시 지난 8월 초부터 일제히 추석 선물상품 사전예약 판매에 돌입, 중간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9.5% 신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올해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실적이크게 신장한 이유는 이례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대표적인 명절선물인 과일과 축산물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롯데백화점, 청과·수산물 등 전년보다 20.3% 급신장 광주신세계, 꽃감·한우 불고기 등 10~33% 할인판매

나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전예약은 주문을 받은 각 유통업체에서 재배농가와 직접 계약을 맺고 해당 상품을 미리 수급해 물량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 본격적인 추석선물 판매 때 상품의 가격이 올라도 미리 농가와 계약을 맺어놓은 덕분에 과일의 경우 시가 대비 5~15%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

광주지역 유통업체 관계자는 "과일은 사전예약 상품도 시가에 따라 가격이 변하지만 미리 재배농가와 계약을 통해 가격이 올라도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 때문에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를 것을 염려한 소비자들의 사전예약 건수가 증가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전 예약을 통해 명절선물을 미리 구매할 경우 상품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매출신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

온다. 여기에 지난 추석까지 5만원이었던 부정청탁 금지법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가액이 올해 설 명절부터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롯데백화점의 '프레가 사과·배 혼합세트'의 사전예약판매는 정사가 10만원보다 20% 할인된 8만원 상당에 구매할 수 있다. 이 상품의 사전예약 판매실적도 전년보다 3배 증가한 상태다.

사전예약 할인행사가 명절을 앞두고 공식적인 이벤트로 자리매김한 것도 실적상승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추석 사전 예약 판매의 매출은 2016 38.2%에서 지난해 40.5%로 증가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역시 지난해 추석 예약 판매 매출이 전년에 비해 33.8% 신장했고, 올해 설 명절에도 전년대비 무려 70%까지 신장하는 등 사전예약 판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유통업체는 사전예약 혜택에 열을 올리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영광 법성포 굴비 세트 8호'를 정사가 대비 20% 할인한 가격인 12만원에 판매하고, '갈비 특호 세트'를 정사가 대비 15% 할인한 가격인 34만 7000원에 판매하는 등 상품군별로 축산 10~15%, 수산 10~20%, 가공·생필품 10~30%, 와인 50~80%로 할인한다.

롯데마트도 9월 5일까지 선물세트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고 롯데, 비씨 등 10대 카드로 결제하는 모든 고객에게 최대 4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9월 6일까지 꽃감세트는 33% 할인해 10만원, 신세계 제주 황금향 세트는 13% 저렴한 7만8000원에 판매한다. 축산부문에서는 전통 양념 한우 불고기를 10% 할인한 10만 8000원, 한우 후레쉬 다복은 5% 할인한 33만 2500원에 판매하며, 수산부문에서도 수협 참굴비 수복을 25% 할인해 30만원에, 덕우도참전복 만복은 8% 할인한 11만4000원에 판매 중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이마트 '마일드 모션침대' 시중가 절반가 판매

이마트는 23일부터 '국민 대표상품 프로젝트'로 이마트와 데코라인이 공동개발한 '마일드 모션침대(사진)'에 대한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마일드 모션침대(1200×2200×1115mm) 가격은 매트리스 포함 89만 9000원으로, 시중 유사상품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모션베드'란 상체와 하체의 각도를 각각 조절할 수 있는 침대로, 소파의 역할도 할 수 있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상품 역시 전용 무선 리모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자세로 조작할 수 있다.

이마트 측이 밝힌 업계추산으로는 지난 2016년 300억원 내외에 불과했던 국

내 모션베드 시장은 1년 만인 지난해 3배 이상 성장해 1000억원대 시장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아직 100만원이 넘는 높은 가격 탓에 모션베드 대중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데코라인과 6개월간의 사전기획을 거쳐 가격을 절감 시켰다고 밝혔다.

이마트와 데코라인은 중국에 위치한 우수 가구전문 제조사 '상하이휴스타일 퍼니처'를 발굴해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생산으로 비용을 감축, 자체 마진을 줄였다는 것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벌써 추석선물세트 판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고객이 명절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최근 추석을 앞두고 폭염으로 신선식품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에 명절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유통업체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남성이 음향기기를 많이 살 것이라는 고정관념과 달리, 여성이 좋은 음향기기에 더 과감히 지갑을 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베코리아가 운영하는 종합쇼핑몰 G9(지구)는 올해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음향기기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여성 고객 비중이 51%로 남성(49%)을 앞질렀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전체 음향기기 판매량은 지난해

여성이 음향기기 더 많이 산다

을 판매량 남성보다 2% 앞서...블루투스 이어폰 20%P 증가

같은 기간보다 87%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남성의 음향기기 구매 비중이 56%로 여성(44%)보다 12% 포인트나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여성 구매가 많이 늘었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음악이나 각종 영상물을 접하는데 용이한 블루투스 이어폰의 여성 구매 비중은 57%로 지난해(38%)보다 20% 포인트가량 증가했다.

휴대용 스피커는 여성 구매 비중이

56%, 벽걸이형 하이파이 스피커는 54%로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비중이 높았다.

G9 가전디지털팀 김이연 팀장은 "개인방송이나 게임, 영화 등과 같은 다양한 영상물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음향기기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들이 소비에 적극적으로 변화면서 판매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 내일부터 '해외유명브랜드 대전'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해외 유명브랜드 대전'을 진행한다. (사진) 광주신세계는 1층 시즌 이벤트홀에서 11개 브랜드 상품을 40~70% 할인해 판매하며,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인 40억 원 규모의 물량이 준비돼 있다. 지난해 이월상품과 가장 최근인 올해 봄·여름 상품까지 비교적 최신 상품들로 구성했다.

또 지역에서 만나보기 힘들었던 명품 브랜드 '조르조 아르마니'의 상품도 다수 확보했다. 이외에도 '엠펬리오 아

르마니', '아르마니 팔레지오니', '막스 마라', '바네사 브루노', '질스튜어트 여성', '마쥬', '자티엔볼테르', 'DKNY', '멜라리나' 등의 브랜드가 참여할 예정이다.

대표 상품으로 '조르조 아르마니'의 투버튼 마 혼방 김엄체크 패턴 재킷(남) 183만 5000원, '막스마라'의 코트 38만 원~198만원, 패딩 68만원~158만원, 재킷 45만원~98만원, '마쥬'의 원피스 22만 3600원, 스커트 16만 7600원, 재킷 49만 1400원, 'DKNY'의 니트 6만 8000원~15만 6000원 등이 있다.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회사 사정상 급매 합니다.

- ✓ 38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8400만원

- ✓ 53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7층, 코너, 전망좋은, 전체 올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 ✓ 시세 - 1억 5000만원
- ✓ 급매 - 1억 1400만원

문의. 010-4920-9300